사도행전 개관

김경진 교수 (호주, Alphacrucis College)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진보를 소개한 신학적 역사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내에서 유일한 역사서로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물론 복음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로서 역사서적인 특징이 없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에 대한 사복음서의 다양한 묘사는 복음서를 문자적인 의미의 역사서로서 정의하는데 거리감을 두게 만든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역사책으로 정의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는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를 다 망라한 완전한 역사서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도행전은 문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인데, 사실 등장하는 사도들은 전반부의 베드로(1~12장), 후반부의 바울(9, 13~28장)이 중심이 되고 있고, 그밖에 몇 몇 지도자 및 전도자들이 등장한다(7장 - 스데반; 8장 - 빌립[헬라 파 지도자]; 15장 -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몇 번 등장하지만(행 3:1; 4:19; 8:14 등), 특별한 역할이 언급된 것은 없다. 그밖에 다른 사도들은 개별적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그들이 베드로나 바울처럼 활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들도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명자인 사도로서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증거하였겠으나(예를 들면, 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전해지며, 임진왜란 때 일본국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천주교 신자였다는 것은 이미 한국, 일본을 포함하여 극동지방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저자 누가는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 다른 사도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및 자료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두 사도를 중심으로 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면, 자료의 선택과 선별에 저자의 의도 및 해석이 담겨져 있으므로, 누가가 쓴 역사는 순수한 역사라기보다는 ‘신학적 역사’ 혹은 ‘역사적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가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 두 사도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기술한 의도는 무엇일까? 다양한 답변이 거론될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답변은 복음 전도에 대한 강조라고 제시된다. 즉 누가는 로마제국의 변두리인 팔레스타인에 속한 시골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거쳐서 당대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많은 장애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달되었음을 나타내보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에는 십자가 처형 이전 마가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예언,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막 14:28; 마 26:32)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다. 이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까닭에 마가복음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던 도시 예루살렘이(막 10:32-34) 누가복음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눅 4:9; 24:52). 이런 견지에서 누가-행전에서 예루살렘과 로마는 두 개의 축이 되어 등장하면서, 누가복음은 예수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중심이 되고 있고, 사도행전은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선교여행과 더불어 로마로의 여행이 중심이 되어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음의 진보와 교회의 성장에 대한 강조는 아마도 누가-행전의 배경이 되는 누가공동체에게 그들의 신앙의 기원을 알게 함(눅 1:1-4; 행 1:1)과 동시에 목하 진행 중인 그들의 선교 사역을 격려하기 위한 의도(눅 24:47-48; 행 1:8)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도행전의 가치: 바울서신의 역사적 배경 자료로서의 의미

사도행전은 한 때 그 본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같은 견해를 갖고 있을는지 모른다. 그것은 바울 서신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한다는 부차적 자료로서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근거 있는 견해로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을 소개하는 복음서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상황을 소개하는 바울서신을 연결시켜주는 다리(bridge)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다. 만일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바울서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저자이자 발신인인 바울 측의 이야기만 기록하였기 때문에, 수신자인 특정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마치 이것은 전화를 통한 대화에서 한쪽편의 말만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빌립보, 고린도 등의 설립 배경 및 형편을 알게 됨으로써 사도 바울이 이들 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을 이해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일례를 소개하면, 빌립보서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 4:15, 16)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느 한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는 사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고린도교회), 그 교회를 떠난 후에는 기꺼이 선교헌금으로써 사례를 받았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이다. 그러면 다른 교회와 달리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이처럼 긴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가 애초부터 자주 장사 루디아 및 귀신 들린 점하는 여종 등과 같은 여성들에 의해 시작이 된 여성 중심의 교회였고(참고, 빌 4:2-3, “유오디아와 순두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리하여 교회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실례로 데살로니가전서를 들면, 이 서신을 기록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사도 바울을 당대의 유랑 사기꾼 철학자 중 하나로 오해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당시 헬라-로마 세계에는 철학을 강의하거나 대중 연설을 하거나 혹은 설득의 기술을 사용하여 돈을 버는 자들이 있었는데, 특징은 한 마을에 오랫동안 머무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잠깐 동안 머물러 사기를 친 다음 다른 마을로 떠나는데, 그 이후에는 영 소식이 끊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잠깐 머물다가 갑작스럽게 훌쩍 떠나버렸기에(행 17:10,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일부 데살로니가 인들이 바울을 이런 사기꾼들과 한 통속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 편지를 저술하였다. 또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손수 일하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자 하였던 것이다(살전 2:5, 9). 즉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울 서신의 내용을 엿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 서신 이해의 배경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사도행전이 지니는 가치의 전부는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자 누가의 사료(史料) 선택 및 배열에 이미 저자의 신학이 내포되어있으므로, 신학적 역사로서 사도행전만의 독특한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주제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은 전편인 누가복음의 내용을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으로 요약하면서 시작하고 있다(행 1:1).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치유 및 축사(逐邪) 등의 기적을 통하여 그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예수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및 전도자들의 메시지의 내용이 되고 있다(행 8:12; 28:23, 31). 즉 복음의 선포자인 예수께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예수의 행하심, 즉 사역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마태는 그 복음서에서 두 번씩이나 요약하여 놓았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 4:23; 9:35) 즉 가르침, 전파(khru,ssw; 설교, 혹은 전도), 고치심, 달리 말하면 교육, 선교, 치유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그대로 오늘날 목회자 혹은 교역자들의 사역의 내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여기서의 치유에는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당연히 포함될 것인데, 그밖에도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자연 기적과 또한 오병이어 등과 같은 급식(給食) 기적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역시 십자가에서의 죽음, 즉 대속의 죽음인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예수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수많은 일 가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어야 우리 인류가 살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이 땅의 인류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굴레서 벗어나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 뿐인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가르치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예수의 취임설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4:15) 한 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교훈의 핵심인 것이다. 마태복음의 천국, 즉 하늘나라란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이 계신 처소인 하늘로 대체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특히 마태복음 13장의 일곱 개의 비유를 통하여 그 왕국을 설명하셨고, 뿐만 아니라 각종 치유 및 급식 기적을 통하여 그 왕국을 능력으로 직접 보여주셨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눅 11:20; 마 12:28) 그 후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 나라로 초대하여 주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9)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및 사역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이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지상에 머물면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개역개정)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번역되었으나, 헬라어 원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중요했기에 부활 후 40일 동안 주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던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승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선포의 내용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행 8:12)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행 19:8)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행 20:25) “…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행 28:23, 31) 이 하나님의 나라(basilei,a)는 영토 및 장소적 개념을 포함하며 미래적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지배 및 주권을 가리키며 현재적 성격도 내포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到來)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사도행전의 구조[[1]](#footnote-0)

사도행전의 구조는 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첫 번째 구조는 활동 인물, 즉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조를 나누는 것인데, 이 때 중심이 되는 사도는 전반부(1-12장)의 베드로와 후반부(13-28장)의 바울이다. 사실 앞서도 지적되었지만, 사도행전은 이들 두 사도의 행적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구조는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을 근거로 하여 나누는 것이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요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근거하여 구조를 나누면, ① 예루살렘의 전도(1-7장); ②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도(8-12장); ③ 땅 끝까지 이르는 전도(13-28장)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땅 끝’이란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로마까지 이르렀으므로 로마로써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구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섯 개의 요약문을 근거로 한 구조인데, 각 요약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이르는 복음전파의 과정을 잘 소개하고 있다; 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성장하다(1:1-6:7) ② 복음이 핍박을 이기고 사마리아로 전파되며, 아울러 사울(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다(6:8-9:31) ③ 베드로에 의해 고넬료가 회심하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 되다(9:32-12:24) ④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과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로, 복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결합시킨다(12:25-16:5) ⑤ 바울의 제2차, 제3차 선교여행으로 인하여 복음이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등지로 퍼져나가다(16:6-19:20) ⑥ 복음이 정치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증거되다(19:21-28:31).

위에서 열거한 이 세 가지 구조는 나름대로 정당한 근거로 갖고 있으면서 사도행전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그 자체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셋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 셋을 함께 연계하여 이해함이 좋을 줄로 생각한다. 이제 이 세 구조를 염두에 둔 채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시작 (1:1-5:42)

 (1) 교회의 시작 (1:1-26)

 (2) 오순절 사건 (2:1-47)

 (3) 앉은뱅이 거지의 치유 (3:1-4:31)

 (4) 교회 안팎의 문제들 (4:32-5:42)

2. 문제들과 인물들 (6:1-8:3)

 (1) 스데반의 사역과 순교 (6:1-8:3)

 (2) 선교사로서의 빌립 (8:4-40)

 (3) 바울의 회심과 소명 (9:1-31)

 (4) 베드로의 설교와 사역 (9:32-11:18)

 (5) 바나바와 베드로와 헤롯의 대조적 삶 (11:19-12:25)

3. 이방세계를 향한 바울의 선교여행 (13:1-19:41)

 (1)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13:1-14:28)

 (2) 예루살렘 공회 (15:1-35)

 (3) 마게도냐에서의 바울의 사역 (15:36-17:15)

 (4) 아가야에서의 바울의 사역 (17:16-18:17)

 (5)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 (18:18-19:41)

4. 바울의 고별여행 (20:1-28:31)

 (1) 예루살렘으로의 바울의 마지막 여행 (20:1-21:16)

 (2) 예루살렘에서의 바울 (21:17-23:35)

 (3) 벨릭스, 베스도, 아그립바 앞에서의 바울 (24:1-26:32)

 (4) 로마로의 항해여행 (27:1-28:31).

사도행전 1장

머리말(1:1-5)

1 데오빌로여, 먼젓번 책에서 나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기록하였다.

2 곧 예수께서 자신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신 다음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기록하였다.

3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는 사십일 동안 그들에게 자주 나타나시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4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전에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의 승천(1:6-11)

6 그 후에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 물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7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8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9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셨다.

10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유다를 대신할 사도 맛디아의 선택(1:12-26)

12 그 후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2]](#footnote-1)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13 성 안에 들어온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이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매와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4 그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15 그 무렵 어느 날 약 백이십 명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베드로가 신도들 가운데서 일어나 말하였다.

16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붙잡아간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말씀은 정녕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17 이는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18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삯으로 밭은 산 뒤, 거기서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져 내장이 모두 흘러나왔다.

19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 밭을 그들의 언어로 ‘아겔다마’라고 불렀는데, 이는 ‘피의 밭’이란 뜻이다.)

20 시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을 폐허로 만드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소서.’[[3]](#footnote-2)

21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던 모든 기간 동안

22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였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3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한 명은 바나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고, 다른 한 명은 맛디아였다.

24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셔서

25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분을 맡아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26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더니 맛디아가 뽑혀서, 그가 열 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4]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원문에는 ‘사도와’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다. 단지 ‘함께 모일 때에’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쉬날리조메노스(sunalizo,menoj)*인데, 이는 ‘함께 식사하다’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때 사도를 포함해서 제자들이(12절, 이 구절에서도 제자들이라는 명사는 나오지 않는다) 함께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던 것으로 보인다(참고, 눅 24:41-43, 49).

[5] 이 구절에서는 원문의 *호티(o[ti)*가 번역되지 못했다. 이를 살려 번역하면,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가 될 것이다. 즉 주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한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성령세례는 사도행전에서 사실 성령의 충만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롬 8:9). 그렇다면 성령세례는 구원과의 관계성보다는 오히려 전도자로서의 성도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할 것이다(막 6:7; cf. 슥 4:6). 특히 이 점은 누가의 신학에서 강조되는 특징 중 하나이다.

[8]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말 번역의 ‘되리라’는 마치 명령처럼 들리지만, 원문은 미래능동태 직설법이다. 따라서 여기는 원문을 따라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번역하였다.

[13] *이층 방* 개역개정역에서는 이 단어를 ‘다락방’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는 곳은 협소한 곳으로 120명(15절)이 함께 모일만큼의 규모가 될 수 없다(참고, 행 9:37, 39; 20:8). 그래서 다수의 영어번역본에서는 이를 upper room으로 번역했고, 나 역시 여기서 ‘이층 방’으로 번역하였다.

단락 구분

1. 서론(1-5절)

2. 전도를 명하시는 예수의 마지막 분부 (1:6-8)

3. 예수의 승천(1:9-11)

4. 열두 번째 사도 맛디아 (1:15-36)

본문 해설

1. 서론(1:1-5):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새로운 시작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소개한다. 예수의 삶과 교훈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의 주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널리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의 시대를 소개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누가가 그 복음서에서 시작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30년 동안의 역사를 중심으로 계속하는 것이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도처에 세워졌고, 구원의 복음은 전 세계,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까지 전파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비록 약점과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들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행 17:6).

누가는 앞선 글, 즉 누가복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한 후 이야기의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는 예수의 사역의 이야기와 교회의 시작 이야기 사이의 통일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즉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것을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의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계속하여 행하고 가르치시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5절이 대체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요약, 소개하고 있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의 서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부한 명령, 40일 동안의 현현의 실재, 그리고 성령의 도래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다(행 1:3-8). 특히 성령에 대한 세 번의 언급(1:2, 5, 8)은 이제 교회 시대를 주도할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을 예시하고 있다. 복음서에서 예수 사역의 협력자로 등장하였던 성령은 이제 초대교회의 설립 및 확장에 직접 간여하시며, 친히 그 모든 사역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비록 외형상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 모든 사역을 주관하여 인도하셨던 까닭에 흔히 “성령행전”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1장 8절은 핵심 요절로써 사도행전이 전개될 프로그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부활 후 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도행전에서는 40일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나타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참고, 고전 15:1-11).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서 흥미로운 평행 점을 발견하게 된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 사람들과 사역으로부터 벗어나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이로써 그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또한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첫 장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양쪽의 경우 그것은 장차 다가올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였다. 이런 과정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이 40일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였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한번 그들을 떠난 적이 있으므로(죽음) 이제 그들은 이 두 번째 기회를 낭비하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와 함께 그 40일 동안 그들은 부지런히 배웠을 터인데, 그 가르침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었다(행 1:3).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민족적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었고,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었던 예수께서는 이를 시정하여 주셨던 것이다.

2. 전도를 명하시는 예수의 마지막 분부 (1:6-8)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수립하시려는 목적을 완성시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행 1:6) 이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보다 긴박한 사명이다(행 1:7-8). 사실 이것은 신약을 통 털어 제자들에게 전달된 예수의 마지막 명령이다. 둘째로, 예수의 승천은 예수께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다시 돌아오실 모습을 예시하신 것으로 풀이된다(행 1:11). 그러나 그전에 먼저 제자들의 복음증거의 시기가 있어야 함을 또한 보여준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에게 역사의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후 약 4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후 누가공동체에서도 이 말씀은 여전히 교회의 지속적인 사역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의 승천으로 인해 생긴 공백이 그분 자신이 보내신 성령으로 채워질 것을 약속한다(행 2:33).

사도행전 1장 8절은 누가복음 4장 18-19절처럼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요절이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이 구절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 유대와 사마리아 → 땅 끝으로 전파되어 나아감을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책 전체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요절을 미리 서두에 소개하는 것은 누가의 문학적 솜씨의 탁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누가신학의 성령론에 대한 매우 중요한 특징을 또한 목도하게 된다. 그것은 성령 → 능력 → 증인이라는 삼종 세트이다. 성령이 임해야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성령과 능력을 함께 연결시키는 것은 누가신학의 성령론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이것은 구원론적 요소가 강하게 부각되는 바울신학의 성령론과 대조되는 특징으로서, 성령을 성도의 사역을 위해서 권능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이미 이러한 특징을 목도하였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눅 4:1)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눅 4:11). 이처럼 성령과 능력을 함께 연결하여 묘사한 저자는 신약성경 저자 중 누가밖에 없다. 이것은 누가신학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원을 적용하실 뿐 아니라, 또한 택한 백성들에게 능력 및 권능을 주시는 분(empowerment)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에서 사도 및 전도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예수의 승천(1:9-11)

사도행전의 승천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약간의 긴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눅 24:50-51). 이는 사도행전에서 주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반해(참고, 고전 15:2-8),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승천이 마치 부활 당일에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두 책 사이의 이러한 차이점은 신학적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인격과 사역의 완성에 초점이 모아졌다면(눅 9:51, 22:69),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설립이 주요한 관심사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장기간 나타나 활동하신 모습이 소개되었던 것이다.

예수의 승천 기사는 역사적 승천 사건의 의미 외에 누가-행전 이해를 위한 또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그 근거는 예수의 승천 사건 자체가 누가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4장 51절 중 “하늘로 올려지시니”는 중요한 사본(시내산 및 베자 사본)에는 빠져있어서, 우리말성경에는 괄호 안에 묶여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누가-행전의 이해의 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것은 누가-행전이 본래 하나의 책으로 한데 묶여있었으나,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면서 어쩔 수 없이 분리되어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두 권이 하나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복음서 마지막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음 장인 사도행전 첫 장에서 승천 장면이 다시 나온다면 어색할 수밖에 없기에, 본래 누가복음 끝부분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후대에 기록된 요한복음이 누가-행전 사이에 끼어들면서 복음서끼리 한데 묶이게 되었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승천장면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자, 아마도 후대 필사자들이 추가로 삽입하였을 것이다. 이런 사실에 근거할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본래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었다는 것은 두 책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매우 소중한 정보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진보적 진영의 학자들은 바울서신에서의 바울에 대한 묘사와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에 대한 묘사 사이에 상이점들을 지적하며, 사도행전의 누가 저작권을 부인하면서, 두 권의 책의 통일성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에서 누가만이 예수의 승천을 가시적 사건으로 묘사했지만, 승천 사건은 신약 도처에서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다(딤전 3:16; 벧전 3:21 이하). 특히 예수의 부활이 단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승귀(昇貴)를 포함하는 다른 구절들에서 함께 소개되고 있다.

4. 열두 번째 사도 맛디아 (1:15-36)

주의 약속을 따라 오실 성령을 기대하면서 제자들은 막연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체제의 정비, 즉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12번째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이 열둘을 채우고자 한 이유는(행 1:26) 열둘이 유대인의 사도라는 특별한 기능과 함께 장차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심판할 보좌에 앉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눅 22:28-30; 9:1). 열둘을 채움으로써 그들은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예수를 증거할 사명이 부활 후에도 계속 되어야함을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열두 번째 사도를 선출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도란 아무나 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위치의 자리인데, 과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재한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의 권위를 이어받을 사도를 선출하게 되었을까? 그 근거를 우리는 사도의 자격을 제시한 사도행전 1장 21-22절에서 발견한다. 한 마디로, 요한의 세례 때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주 예수와 늘 동행하였던 사람, 즉 주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증인”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며 주목해야 할 포인트 중 하나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사도의 자격을 언급할 때 예수의 사역과 교훈을 직접 체험한 <증인>을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였다는 사실이다(행 1:8, 2:32, 3:15, 10:39 등).

사실 이런 까닭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히 동행한 자격을 결여한 바울을 가리켜 사도라고 부르기를 매우 꺼려한 것을 보게 된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란 말이 수도 없이 나오지만, 성경 원문에 따르면 사도행전 전체에서 바울을 사도라고 부른 곳은 겨우 두 번(행 14:4, 14)뿐이다.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를 직접 사도라고 부른 곳이 단 두 곳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역으로 누가가 사도의 자격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공(公)과 사(私)를 철저하게 구분 짓고 있는 저자 누가의 모습을 발견한다. 비록 제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과 동행하였던 개인적인 연분이 있었고, 사실 또 이 사실로 인해, 즉 사도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훗날 그의 저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했을지라도, 누가는 증인의 자격이 없는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기를 기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사도라고 불린 두 번의 경우에도(행 14:4, 14), 이것이 직무로서의 타이틀(title)이라기보다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이들이라는 기능적(function)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avpo,stoloj)는 본래 파송을 받은 자(he who is being sent)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또 다른 용례를 보면,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라디도가 있고(빌 2:25, 우리말 성경에는 “사자”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사도”로 되어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런 의미에서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불리시기도 하였다(히 3:1).

바사바 유스도 요셉과 맛디아는, 비록 처음부터 사도로 택함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수의 세례와 부활 및 승천을 목격한 증인으로써 사도의 자격을 갖추었고, 이 둘 중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구약적 방법이었던 제비뽑기를 통하여 맛디아를 선출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두 종류의 사도가 존재하였음을 보게 된다. 첫째로 주 예수께서 친히 선택하신 역사적 사도 열둘과, 둘째로 교회가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선택한 교회사역적 사도이다. 이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바나바(행 14:4, 14),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빌 2:25),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롬 16:7) 등이 있다. 특히 로마서에 등장하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우리말 번역에 의하면 사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나, 원문에 의하면 사도임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원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그들은(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사도들 가운데 존중히 여김을 받았고 ….” 즉 두 사람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 가운데 (among the apostles) 존중히 여김을 받았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사실은 이 중 유니아는 여성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여성이 교회의 선택을 받아 사도로 활동하였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를 자신의 동역자로 간주하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롬 16:3).

13절에 소개된 12 사도들의 목록은 순서만 조금 차이가 날 뿐 누가복음 6장 14-16절의 목록과 일치한다. 마가와 마태복음의 목록을 함께 고려할 때(막 3:16-19; 마 10:2-3), 우리는 사도들이 그 활약상에 근거하여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A 그룹 -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B 그룹 - 빌립, 바돌로매(나다나엘), 도마, 마태(레위); C 그룹 -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맛디아. 결국 스승 예수와의 빈번한 교제를 통하여 친밀하게 된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런 진리는 오늘날도 유효하여 주와 깊은 교제의 비밀을 많이 간직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가능성이 많게 될 것이다.

열두 사도의 목록 중에서 우리는 마태, 마가복음의 그것과 다른 한 부분에 주목하게 된다. 마태, 마가복음에서 *가나나*인 시몬이(마 10:4, 막 3:18) 누가복음에서는 셀롯인 시몬으로(눅 6:15, 행 1:13) 되어 있는 부분이다. 사실 카나나이오스(kananai/oj)는 아람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열심당원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성경 난하주를 보면, *가나나*는 아람어로서 열심당원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역본에서는 the Canaanite, 즉 가나안 사람으로 되어있고 그리하여 한글개역 성경에서는 이를 ‘가나안인’ 시몬으로 번역하였으나, 개역개정역에서는 아람어 *가나나*를 그대로 표기하며 그 의미를 난하주에 밝힌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단 중에서 열심당원(시몬)과 세리(마태)가 함께 포함된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만일 이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둘은 상극(相剋)으로서, 혹시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를 죽이려 했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극인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완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상과 철학,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을 그 근본에서부터 감화시켜 하나로 만드는 용광로 같은 분이시다.

현대적 적용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주도적으로 사도 및 교회의 사역을 인도하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게 된다. 특히 제자들에게 분부한 마지막 명령인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요절로써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될 교회의 사명을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울러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교회의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1-7장 → 예루살렘 전도; 8-12장 →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13-28장 → 땅 끝까지 나아가는 온 누리 전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복음 증거 및 사역의 공식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결과로 권능을 받고, 그 후에야 비로소 증인이 된다는 공식이다. 즉 성령 → 권능 → 증인.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및 제자들은 복음 증거에 앞서 바로 다음 장(2장)에서 오순절 날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을 역으로 풀이할 때,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성령을 통한 권능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열심만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오직 권능을 받은 자라야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누가-행전에서 성령은 종종 능력 및 권능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눅 4:14, 5:17; 행 6:5, 8, 8:13). 이러한 진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여,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자라야 증인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26] *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1장 26절 중 12절이 하나의 사건, 즉 맛디아를 사도로 선택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중이며,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도의 수인 열 둘(12)이 구약 이스라엘 열두(12) 지파와 병행되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눅 22:30).

이런 까닭에 누가는 가룟 유다 대신에 열두 번째 사도로 선택된 맛디아 선출 사건을 매우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맛디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맛디아의 선택을 다루는 15-26절에서 맛디아가 어떤 인물인지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러나 맛디아가 어떤 인격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증거를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의 자격으로 제시되고 있는 21-22절이다. 이 구절에 의하면 맛디아는 주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줄곧 주를 비롯하여 다른 사도들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도 맛디아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인격 됨됨이를 가졌는지를 확인함으로써, 21세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설교: 가룟 유다와 맛디아 (행 1:15-26)

맛디아는 12번째 사도입니다. 그러나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도입니다. 그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겨우 배신자 가룟 유다 대신 바사바 유스도 요셉을 제치고 선택된 운 좋은 사도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사도의 자격을 제시하고 있는 21-22절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세례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주와 동행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맛디아와 가룟 유다는 모두 사도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유다는 사도로 선택되었고, 맛디아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맛디아는 실망하여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주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돈 욕심에 이끌려 스승을 배신하고 마침내 자살하여 죽어 그 자리가 비게 되자, 마침내 맛디아가 그 대신 사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하여, 사도 맛디아의 인생에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맛디아는 초지일관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역의 초창기부터 12 사도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역 시작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12 사도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맛디아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주를 좇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도로 택함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계속하여 주의 뒤를 좇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 때까지 줄곧, 시종일관,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맛디아는 처음과 끝이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고. 갈렙 (수 14:10-12).

반면에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사실 ‘가룟’이란 말은 이스카리옷( vvIskariw,q), 즉 그(가)리옷 사람이란 뜻인데, 그리옷은 유다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12 마일 떨어진 마을입니다(수 15:25; 렘 48:24). 그렇다면 유다는 12 제자 중 유일한 남부 유대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남다른 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실 유다가 제자단에서 맡은 회계(會計)라는 직분 역시 그의 신임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초창기에는 적어도 그만큼 신임 받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는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돈의 유혹에 넘어가 스승을 배신하여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막 3:19). 결국 가룟 유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악하여진 경우입니다(약 1:15). 이제 맛디아와 가룟 유다의 상반된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한 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맛디아처럼 처음의 그 뜨거운 신앙을 여전히 간직하며 승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어제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지?

둘째로, 맛디아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맛디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의 뒤를 좇았습니다. 비록 사도단에 끼지 못함으로 멸시, 천대, 박대 등을 받았을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맛디아가 당하였을 법한 홀대(忽待) → 막 9:38.

반면에 가룟 유다는 12 사도들만이 누렸던 특권, 즉 성만찬, 특별 교육, 백성들의 접대 등을 잘 받았을 것입니다(눅 10:36-42; 눅 19:1-10; 눅 14장 1-14).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접대와 혜택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돈에 대한 욕심을 추구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순수한 열심으로 주님을 좇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맛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서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상급으로 알고 주님을 따랐습니다(히 11:6).

셋째로, 두 사람의 마지막 결과는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침내 배신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막 14:21). 한편 맛디아는 보궐선거에서 피택되어 마침내 사도의 반열(班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도로 택함 받지 못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동기로 갖고 주님을 따랐던, 착한 성도 맛디아는 마침내 하나님과 교회의 인정을 받아 영광스러운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 왕 요아스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대하 24).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와 맛디아의 시작과 결말은 바뀌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창대하였다가 나중은 미미한 존재인 가룟 유다, 그리고 그 반대인 맛디아. 그렇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1. 여기에 소개된 사도행전의 구조는 본인의 사도행전 주석을 참조하였다. 김경진, 『성서주석 사도행전』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주석 3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47-49. [↑](#footnote-ref-0)
2. 약 1 킬로미터. [↑](#footnote-ref-1)
3. 시 69:28, 시 109:8. [↑](#footnote-ref-2)